

# 추석 가정 예배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찬 송 ..... 29장(통29장) ..... 다 같이

1. 성도여 다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2. 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3.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 아멘

기 도 ..... 가족중에서

성경말씀 ..... 11장 27-30절 ..... 가족중에서

-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설 교 ..... 나에게 오라 ..... 설 교 자

추석은 가족이 모여 풍성한 결실을 나누며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수고와 염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 참된 하나님을 만나며, 어떻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 1)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라 (27절)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 사람의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란 세상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부귀영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족이 명절에 모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은혜를 나누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2)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라 (28절)

명절에 한자리에 모이지만, 막상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건강, 경제, 자녀, 미래에 대한 염려 등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 짐을 홀로 견디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초청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족끼리 서로 탓하거나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는 가정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과 평안이 명절을 맞이한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 3)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29-30절)

내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의 찜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곁에서 함께 짊어져 주시는 은혜의 멍에입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을 가족들이 함께 배워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마음의 쉼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559장(통305장) .....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아멘

주 기 도 ..... 다 같 이  
식사기도 ..... 가족중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동부교회**